



벤츠 전기차 ‘더 뉴 EQS’ 첫 공개 외관부터 내부까지 파격 디자인

실내를 가로지르는 MBUX 하이퍼스크린 입이 떡
모듈형 아키텍처 적용…1회 충전시 770km 주행

메르세데스-벤츠가 브랜드 최초의 럭셔리 전기 세단 ‘더 뉴 EQS’를 15일 메르세데스 미 미디어 사이트를 통해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메르세데스-벤츠가 자체 개발한 전기차 전용 모듈형 아키텍처를 최초로 적용했으며, 현존하는 전기차를 중 가장 혁신적인 디지털 요소를 적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관부터 완전히 새롭다. 하나의 활과 같은 윈-보우(wine-bow) 비율과 캡-포워드(Cap-forward) 디자인을 채택해 내연 기관 차량과 차별화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변화는 전체 계기판 패널이 하나의 와이드 스크린으로 이뤄진 MBUX 하이퍼스크린(Hyperscreen)을 적용한 실내용. 유리로 된 디스플레이가 마치 파도처럼 실내 전체를 가로지르며 펼쳐져 있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주행 가능 거리도 혁신했다. 더 뉴 EQS에는 107.8kWh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1회 충전시 770km의 주행거리를 제공한다. 새로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패키지, 전 세계 양산 차량 중 가장 뛰어난 공기저항계수를 통해 주행 가능거리를 대폭 늘렸다. 급속 충전기로 충전시 15분 만에 최대 3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수준의 충전이 가능하다.

학습이 가능한 인공지능도 탑재했다. 사양에 따라 최대 350개의 센서를 장착했는데 이 센서들은 거리, 속도, 가속, 조향 상태를 비롯해 강수량 및 온도, 탑승객의 유무는 물론 운전자의 눈 깜빡임과 탑승자의 화법까지 기록해 최적화된 주행 환경을 만들어준다.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기능도 갖췄다. 2022년 상반기부터 독일에서는 EQS에 선택 사양으로 제공되는 드라이브 파일럿(DRIVE PILOT) 기능을 통해 교통량이 많거나 혼잡한 상황에서도 최대 60km/h까지 부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의 레벨 4 자동 발렛 주차(AVP)가 가능한 인텔리전트 파크 파일럿 기능도 탑재됐다.

원성열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MQB 적용한 티록, 안전은 콤팩트 SUV 중 최고

〈가로배치 엔진 전용 모듈러 플랫폼〉

높은 차체 강성, 전 세계에서 인정
전 트림 첨단 안전 사양 기본 적용
넓은 공간·도심 최적화 성능 탄탄

콤팩트 SUV는 뛰어난 실용성과 경제성으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콤팩트 SUV 예비 오너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을 안전성으로 꼽는다. 아무래도 작은 차는 큰 차보다 덜 안전할지 모른다는 편견이 있기 때문이다. 1월 출시된 폭스바겐의 새로운 콤팩트 SUV인 신형 티록은 폭스바겐의 대표 모듈러 플랫폼인 MQB(가로배치 엔진 전용모듈)를 적용해 이런 불안요소와 편견을 완전히 잠재웠다.

●높은 차체 강성 갖춘 폭스바겐 MQB

폭스바겐의 대표 범용 플랫폼인 MQB에 대한 안전성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입소문이 자자하다. MQB 플랫폼이 최초로 채택된 티구안과 아테온의 국내 오너들 중에서도 MQB 플랫폼 덕분에 큰 사고에도 목숨을 건진 후가들이 여러 나온 커뮤니티에 회자되고 있다. 신형 티록 역시 높은 강성을 자랑하는 MQB를 기반으로 제작돼 한 세그먼트 윗급의 티구안과 견주어도 될 만큼 차체 비틀림 강성이 높다.

실제로 폭스바겐 티록은 2017년 출시 당시 유럽에서 신차 안전 수준을 평가하는 엄격한 척도로 알려진 유로엔캡 충돌 테스트에서 별 5개를 획득하며 유로엔캡이 선정한 동급 테스트 차종 중 가장 안전한 차(2017년 출시 기준)로 꼽힌 바 있다.

티록은 성인 승객 안전성에서 96%, 어린이 승객 안전성에서 87%, 보행자 안전성에서 79%, 그리고 안전보조 시스템에서 71%를 획득하며 소형 오프로드 세그먼트에서 가장 안전한 차로 선정됐다.

●풍부한 안전 및 편의 시스템 탑재

티록에는 세그먼트를 뛰어넘는 다양한 안전 및 편의 시스템이 적용됐다. 전 트림에 ▲전방충돌경고 및 긴급제동시스



폭스바겐의 새로운 콤팩트 SUV인 신형 티록은 대표 모듈러 플랫폼인 MQB(가로배치 엔진 전용 모듈)를 적용해 뛰어난 안전성과 민첩한 주행 성능이 특징이다. 사진은 폭스바겐 신형 티록 외관(위)과 넓은 공간이 특징인 실내.

폭스바겐 신형 티록 주요 제원	
전장 / 전폭 / 전고 (mm)	4235 / 1820 / 1575
휠 베이스 (mm)	2605
공차중량 (kg)	1473
엔진 형식	직렬 4기통 디젤 직분사 터보차저
배기량 (cc)	1968
최고출력 (ps/rpm)	150 / 3500 ~ 4000
최대토크 (kg · m/rpm)	34.7 / 1750 ~ 3000
구동형식	전륜구동
변속기	7단 DSG
복합연비 (km/L)	15.1
도심 / 고속도로 연비 (km/L)	13.8 / 17.0
가격	3599 ~ 4032만 원

템 ▲다중 충돌 방지 브레이크 ▲프로액티브 탑승자 보호 ▲보행자 모니터링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링 및 후방 트래픽 경고 ▲파크 파일럿 전후방 센서 ▲피로 경고 시스템 등 다양한 첨단 안전 편의 시스템이 탑재됐다. 프리미엄 모델부터는 차량 주행 속도를 유지하고 앞 차와의 거리를 설정대로 유지해주는 어댑티브 브루즈 컨트롤 시스템이 탑재되어 장거리 주행시 피로도를 줄여준다.

●넓은 실내 공간과 최대 1290L 적재량

신형 티록은 콤팩트 SUV라고 느낄 수 없을 만큼 넓은 실내 공간을 갖추고 있다. 신형 티록의 개발팀과 디자인팀이 전 체적인 전장(4235mm) 대비 긴 휠베이스(2605mm)를 적용할 수 있었던 것도 MQB 플랫폼 덕분이다. 5명의 승객이 탑승

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을 마련했다. 운전석과 조수석은 물론 2열 공간도 앞좌석 등받이 부분이 파인 형태로 만들어져 무릎 공간이 주목하나 들어갈 정도가 여유롭다. 또한 5인승으로는 동급 최대 수준인 445L에 이르는 넓은 적재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뒷좌석 등받이는 60:40으로 나눠 접는 것이 가능하다. 모두 접었을 경우 적재 용량은 최대 1290L로 늘어난다.

●도심에 최적화된 가속력과 핸들링

신형 티록의 매력은 드라이빙에서 더욱 빛난다. 특히 가속력과 고속 주행에서의 안정성이 인상적이다. 티록은 티구안보다 짧은 전장(4235mm), 휠베이스(2605mm), 전폭(1820mm), 전고(1575mm)의 비율을 지니고 있다. 전고는 낮

춘 대신 전폭이 넓어 전체적인 비율이 더욱 역동적이며, 차체의 무게 중심을 낮춰 더욱 최적화된 핸들링 성능을 느낄 수 있다.

신형 티록은 이미 여러 차종에서 검증된 2.0 TDI 엔진과 7단 DSG 변속기의 조합으로 이뤄져 있다. 1750~3000rpm의 넓은 실용 가속영역에서 최대 토크 34.7kg.m를 뽐내기 때문에 매 순간 경쾌한 가속력을 경험할 수 있다.

순간 가속도 능력도 뛰어나다. 신형 티록은 정지 상태에서 지속 100km까지 8.8초 만에 도달할 수 있다. 전체적인 주행 감각과 승차감은 상위 모델인 티구안 혹은 폭스바겐 골프를 닮았다. 장거리 주행시의 안락함이나 편투드라이빙 성능 역시 대등한 수준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현대차·기아, TaaS 본부 총괄에 송창현 사장 임명

〈포괄적 수송 서비스〉

네이버 CTO 출신…모빌리티 주도

현대차·기아는 모빌리티 기능을 총괄하는 TaaS 본부를 신설하고, 본부장에 네이버 최고기술책임자(CTO) 출신인 송창현 사장을 임명했다. ‘TaaS(Transportation-as-a-Service)’는 포괄적인 수송 서비스를

의미한다.

신설되는 TaaS본부는 기존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고객 관점에서 통합하고, 사용자 데이터에 근거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도입해 글로벌 모빌리티 사업 경쟁력을 높인다. 다양한 기업이 참여해 협업할 수 있는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 역할도 수행할 계획



송창현 사장

이다. 현대차·기아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S/W전문가로 정평이 난 송창현 사장을 영입하고 전통적인 자동차산업의 프레임에서 벗어난 혁신을 통해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송창현 사장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을 쌓았고, 네이버 최고기술책임자를 거쳐 2019년에는 모빌리티 서비스 스타트업인 포트투닷(42dot)을 창업해 최근까지 도심형 모빌리티 통합 플랫폼 개발과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주도해왔다. 송창현 사장은 “정부 및 타 모빌리티 기업들과 협력하여 한국 모빌리티 산업의 궁극적인 경쟁력 확보와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뇌가 색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강주현의 퍼즐월드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도쿠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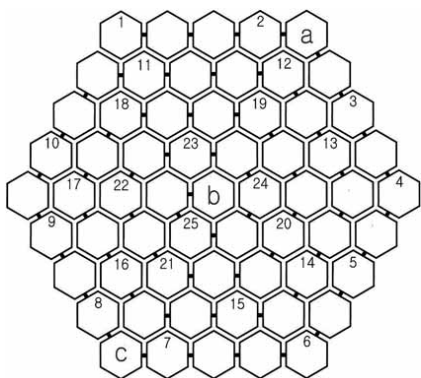
	5					6		
1			4	9	8			3
		3		5		9		
	8		5		7		9	
	6	7				4	1	
	4		1		6		8	
		5		6		2		
8			9	1	5			6
	9						5	

	3				1	7		
		1	8		7			6
	2			3				5
9	7			6			5	
		2	4		3	1		
	4			7			2	8
2				4			9	
3			9		6	8		
		4	3				6	

■ 스도쿠정답

1	9	8	2	5	7	6	3	4
9	6	7	5	1	6	2	8	3
6	8	2	7	9	8	5	1	4
4	8	6	9	2	1	6	7	5
5	1	7	6	8	9	4	2	3
2	6	9	4	7	5	1	8	3
8	4	7	1	5	9	6	2	3
3	2	5	8	6	7	9	4	1
7	9	1	3	4	2	8	5	6
2	9	5	8	1	6	7	3	4
4	7	8	9	2	6	5	1	3
1	6	8	5	7	4	9	8	2
8	2	9	6	7	5	4	1	3
6	4	1	3	8	7	2	9	5
5	9	7	2	9	1	8	4	6
9	1	6	7	8	9	4	2	3
9	8	2	4	6	8	1	5	7
7	8	4	1	5	2	6	3	9

■ 낱말문제



01.제사에서 신위를 기준으로 붉은 과실은 동쪽에 흰 과실은 서쪽에 차리는 격식. 02.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을 이르는 말. 03.신문 등에 원고를 보내는 사람. ‘기○○’ 04.집안 살림의 수입과 지출을 적는 장부.

05.추첨이나 상대편의 기권 따위로 경기를 치르지 아니하고 이기는 일. 06.마루에 오른 다음 방으로 들어간다는 뜻. “승○○입○○” 07.고향을 잃고 타향서 지내는 백성. 08.일반 국민이 생활하는 데 겪는 고통. 09.저위도에 위치하고 표고가 600미터 이상으로 높고 한랭한 곳. 10.남이 베풀어 준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갚음. 11.은혜와 위엄을 아울러 행함. 12.귀한 손님을 맞을 때 마당에 끼는 좁고 긴 돛자리. 13.자갈밭을 가는 소라는 뜻. 14.바람에 나뭇잎 따위가 많이 떨어지는 소리. 15.수입과 지출의 셈을 맞추어 봄. 16.자국의 영토 및 영해에서 원유를 생산하는 나라. 17.나라에서 대 주는 학비로 공부하는 학생. 18.살아서 존재하는

것과 죽어서 없어지는 것. 19.밤을 새워서 달아남. 20.주의가 자세하고 빈틈이 없음. 21.말을 뺏아 체로 쳐서 남은 찌꺼기. 22.참다 티뜨린 울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3.걸어서 길거리를 왕래하는 사람. 24.스스로 그린 초상화. 25.필요할 때 쓸 수 있게 갖춰 두는 돈.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풀 다음 a~c칸을 이어놓으면 꽃 이름이 됩니다.

